

# 「눈의 여왕」과 〈겨울왕국〉의 비교분석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now Queen」 and 〈Frozen〉 -Focusing on A.J. Greimas' semiology

성례아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Rea Sung(leo@bu.ac.kr)

### 요약

동화, 민담, 설화 등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듯 기존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원작을 변형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지, 원작의 소재와 주제를 어떻게 변형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으로 변용되면서 원작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것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활용하여 두 작품의 서사, 행위소, 기호사각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눈의 여왕」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였지만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종교적으로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겨울왕국〉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생성하고 있으며, 「눈의 여왕」의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사회적이고 대중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 중심어 : 「눈의 여왕」 | 〈겨울왕국〉 | 행위소 모형 | 기호사각형 | 의미 |

### Abstract

It is very common to produce fairytales, folktales, or fables into animations. If they often transform existing works into animations, we may have to examine how they change the original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also how they change the original's subject matter or theme to create m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how the original's meaning and value were changed as Hans Christian Andersen's fairy tale, 「The Snow Queen」, was converted into an animation, 〈Frozen〉, and also how it influenced the work itself. To attain the goal, this author is going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two works' narratives, actants, and semiotic squares by using A.J. Greimas' semiology. According to the findings, although 「The Snow Queen」 expresses the desire to go back to happy days in the past, it is not a simple return to the past but a stepwise process to become mature mentally as well as religiously. Meanwhile, 〈Frozen〉 intends to generate past-oriented meaning expressing the desire to return what is abnormal in the present to what was normal in the past and resolve the individual and religious aspects of 「The Snow Queen」 in a social and popular way.

■ keyword : 「The Snow Queen」 | 〈Frozen〉 | Actant Model | Semiotic Square | Signification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5년 08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09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14일

교신저자 : 성례아, e-mail : leo@bu.ac.kr

## 1. 서론

동화나 민담 또는 설화 등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으로 언급될 만큼 일반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세암>, <천년여우 여우비>는 구비문학에서, <홍길동>, <별주부 해로>, <왕후심청> 등은 고전소설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중 가장 큰 흥행성적을 거둔 <마당을 나온 암탉>도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렇듯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문학작품보다는 애니메이션이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의미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동화를 원작으로 하여 원작의 명성을 드높이고 흥행에 성공한 대부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국내 애니메이션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외하곤 원작에 비해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원작을 변용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원작을 변형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지, 원작의 소재와 주제를 어떻게 변형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둔 <겨울왕국>을 선정하였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하여 원작인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이 다시 주목받아 읽혀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겨울왕국>의 어떠한 점이 「눈의 여왕」을 읽게 하는 것인가?, 「눈의 여왕」이 <겨울왕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중문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의 분석 영역을 의미작용을 창출하는 담론으로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그의 의미작용의 생성행로 모델은 최고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모든 담론(텍스트, 이미지, 영화, 광

고 등)의 의미가 생성과 서사성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논리적·합리적으로 보여주고[1]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겨울왕국>과 「눈의 여왕」의 서사와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두 작품에서 생성하고 있는 의미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 그레마스의 기호학

그레마스는 레비스트로스의 계열체 모델과 프로프의 통합체 모델을 결합하고 수정보완하면서 기호들이 창출하는 의미와 서사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위해 의미 생성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기호학적 분석 영역을 의미작용을 창출하는 담론으로 확장시켰다[1]. 의미 생성모델은 시각적 이미지가 포착되는 표층구조, 스토리텔링이 창출되는 서사구조, 핵심 컨셉을 창출하는 심층구조 이렇게 3가지 구조를 통해 의미가 생성되고 조직되는 가를 보여주며 주로 텍스트, 이미지, 영화, 광고 등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층구조로부터 복잡하고 구체적인 심층구조의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관객은 더 넓고 깊어진 시각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

### 1. 행위소 모형

행위소 모형은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주변 인물들 간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욕망의 축, 전달의 축, 능력의 축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욕망의 축은 주체(sujet)가 욕망하는 대상(objet)에 대한 축이고, 전달의 축은 주체가 대상을 욕망하게 만드는 발신자(destinateur)와, 주체가 대상을 획득했을 때 대상을 전달받는 수신자(destinataire)에 대한 축이며, 능력의 축은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도와주는 조력자(adjutant)와 그것을 방해하는 적대자(opposant)에 대한 축이다. 행위소 모형은 서술구조 내 존재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내의 의미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개도식을 발견하게 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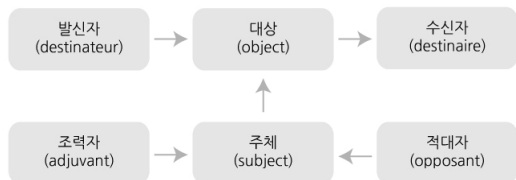


그림 1.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

## 2. 기호사각형

행위소 모형만으로는 텍스트 전체에 내재한 의미 체계들의 구조와 그것의 사회적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3] 그레마스가 새로 보완하여 제시한 것이 기호사각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차용한 기호사각형은 범주적 대립관계에 있는 두 개의 의미소 S1, S2를 상정하고, 이들과 모순관계에 있는 의미소 -S1, -S2를 상정한 후, 서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심층적 구조와 의미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기호사각형은 텍스트의 의미작용의 가치체계를 시각적으로 배치하여 논리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분법적인 이항대립을 넘어 의미생성 과정과 주체의 서사적 행위를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4]. 즉 기호사각형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항대립구조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해석자의 의미작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작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기호사각형에서 첫 번째 대립은 S1과 S2의 각기 다른 범주적 대립관계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대립은 S1의 결핍으로 인한 대립 -S1과, S2의 결핍으로 인한 -S2가 구축하는 모순관계에서 형성되며, 마지막 세 번째 대립은 -S2가 S1을 형성하기 위해 전체되어지는 함축관계와, -S1이 S2를 형성하기 위해 전체되어지는 함축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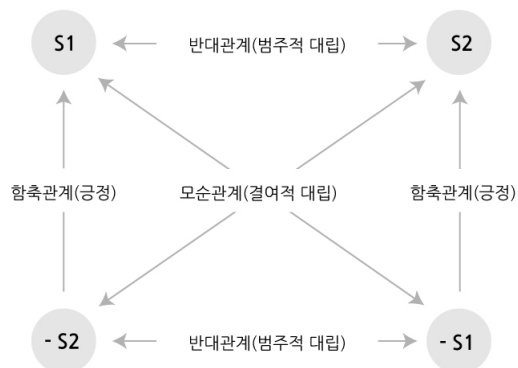


그림 2.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 III. 「눈의 여왕」과 <겨울왕국>의 비교

앞서 제시한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안테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과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각각의 텍스트를 시퀀스별로 나누고, 행위소 모형과 기호사각형을 적용하여 두 텍스트를 비교하고자 한다.

### 1. 시퀀스 분석

#### 1.1 「눈의 여왕」의 시퀀스

안테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5]은 게르다라는 한 소녀가 눈의 여왕에게 납치된 소꿉친구 카이를 구하러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눈의 여왕」은 일곱 가지의 이야기로 엮은 동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일곱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겨울과 겨울조각: 사악한 요정이 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쁘고 고약하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거울을 만들고, 그것으로 천사와 신에게 장난치려 하늘로 올라가다 땅에 떨어뜨려 마법의 거울이 산산 조각난다.
2.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아이: 이웃집에 사는 카이와 게르다는 장미를 키우며 친남매처럼 지내던 중, 카이의 심장과 눈에 마법의 겨울조각이 들어간

다. 거울조각이 들어가자 카이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게르다와 함께 했던 것들을 비웃는다. 카이가 광장에서 썰매를 타고 있을 때, 눈의 여왕이 카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간다.

3. 마법을 알고 있는 노파의 화단: 게르다는 카이가 살아있다는 헛살과 제비의 말로 인해 사라진 카이를 찾아 떠난다. 강물에게 자신의 소중한 신발을 주고 카이에 대해 물어보다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마법을 부리는 노파의 오두막에 도착하게 된다. 노파의 화단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노파의 모자에 있는 장미를 보고 자신이 카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이를 찾기 위해 길을 재촉한다.
4. 왕자와 공주: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다니다 만난 까마귀의 이야기를 통해 공주와 같이 있는 왕자가 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카이가 아니었다. 공주와 왕자는 카이를 찾는다는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부츠와 털토시, 황금마차를 게르다에게 선물로 준다.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으러 떠난다.
5. 산적의 어린 딸: 게르다는 산적들을 만나 죽게 되었지만, 산적의 딸이 게르다를 살려주고 산적의 딸이 키우는 산비둘기가 카이의 소식을 알려준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산적들로부터 탈출시키고 순록에게 게르다를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라플란드에 데려다 주라고 한다.
6. 라플란드 할머니와 핀란드 여자: 라플란드 할머니와 핀란드 여자의 도움으로 게르다는 순록을 타고 눈의 여왕의 정원에 도착한다. 게르다는 홀로 눈의 여왕 정원에서 성까지 뛰어간다. 눈송이 군단들이 게르다를 공격하지만, 게르다는 기도로 눈송이 군단들을 물리치고 무사히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한다.
7. 눈의 여왕의 성에서 일어난 일과 그 뒤에 일어난 일: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얼음조각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자유의 몸이 되고 온 세상과 스케이트를 선물로 준다고 말하고 따뜻한 나라로 떠난다. 그때 게르다가 성에 들어와 카이를 만났지만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지 못한다. 게르다의 눈물과 찬송이 카이의 심장과 눈에 있는 거울 조각

을 씻어낸다. 이제야 카이도 게르다를 알아보고 서로 껴안으니 얼음조각들이 저절로 영원이라는 낱말을 만든다. 게르다와 카이가 눈의 여왕의 성에서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서로 손을 잡고 어릴 때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

## 1.2 <겨울왕국>의 시퀀스

<겨울왕국>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엘사와 안나, 두 공주 자매의 성장과 우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겨울왕국>의 시퀀스를 시간적 관점에서 다루느냐 공간적 관점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엘사의 설빙능력으로 안나가 다치게 되자 트롤들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는다. 왕은 트롤의 경고로 인해 엘사가 설빙능력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방에 가두고 성문을 걸어 닫는다. 안나는 엘사를 찾아가 같이 놀기를 청하지만 번번이 외면당한다.
2. 왕과 왕비가 여행 도중 죽음을 맞이한다. 안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엘사를 찾지만, 여전히 엘사는 안나를 외면하고 점점 강해지고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설빙능력으로 두려워한다.
3. 엘사는 무사히 대관식을 마치지만, 처음 만난 한스와 결혼하겠다는 안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설빙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게 된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자 당황한 엘사는 두려워하며 북쪽 산으로 도망하면서 자신의 설빙능력을 마음대로 쓰며 얼음 성을 만든다.
4. 안나는 한스에게 아렌델을 부탁하고 언니 엘사를 찾아 떠난다. 혼자 숲속을 헤매던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만나 길안내를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엘사가 만든 성에 도착한다.
5. 안나를 만난 엘사는 아렌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안나는 얼어붙는 아렌델을 멈추게 할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엘사는 두려워하며 안나를 내쫓는데 그 과정에서 엘사의 설빙능력이 안나의 가슴에 맞게 된다.
6. 안나를 태운 말만 홀로 돌아오자, 한스는 안나를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 얼음 성으로 쳐들어간다. 한스는 상들리에를 떨어뜨려 엘사를 기절시킨 후, 아렌델로 데려와 감옥에 가두지만 엘사는 감옥을 열러버리고 도망한다.

7. 크리스토프는 안나의 머리가 변해가는 것을 보고 트롤들에게 데려간다. 트롤이 진실한 사랑의 행동만이 안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있다고 알려주자,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한스에게 데려다 준다.
8. 진실한 사랑의 행동을 바라는 안나에게 한스는 아렌델의 왕위를 넘보는 야욕을 드러내며, 안나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둔다.
9. 점점 얼어붙는 안나에게 올라프가 찾아와 불을 지펴주며 크리스토프가 안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창문 너머로 크리스토프와 스펀이 전력질주하며 성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안나와 올라프도 크리스토프를 찾아 성 밖으로 나간다.
10. 눈보라 속에서 엘사를 만난 한스는 그녀 때문에 안나가 죽었다고 말하자 엘사는 주저않아 안나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 때, 거센 눈보라가 점차 찾아 들고 멈춘다. 한스가 칼을 빼 엘사를 죽이려한다. 이 광경을 본 안나는 얼어붙는 자신을 구하기보다 엘사를 위해 온몸으로 한스의 공격을 막는다. 그 순간 안나의 몸은 얼어붙는다. 엘사가 얼어버린 안나를 꺼내고 오열하자 안나의 몸이 점점 녹아 살아난다. 엘사는 올라프의 말을 통해 사랑의 행동이 안나를 녹인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아렌델의 여름을 되찾는다.
11. 한스는 고국으로 이송되고, 안나는 크리스토프에게 새 썰매를 선물하며 사랑을 확인한다. 설빙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엘사는 안나와 아렌델 백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 2. 행위소의 비교분석

### 2.1 「눈의 여왕」의 행위소 분석

「눈의 여왕」에서의 주체는 게르다이다. 게르다는 갑자기 사라진 소꿉친구 카이를 찾아 나선다. 주체인 게르다가 욕망하는 것은 소꿉친구인 카이를 찾는 것이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기 위해 온갖 역경과 고난을 만

나게 되지만, 자신이 찾고자하는 카이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여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주체이다.

초반부에 게르다는 카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적인 존재인 햇빛과 제비들의 말로 인해 카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여 찾아 나서게 된다. 또한 게르다가 강물에게 자신의 소중한 빨간 신발을 선물로 주며 카이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신발을 물로 옮겨주고 게르다가 탄 배를 떠내려가게 한 것도 강물이다. 이처럼 자연적인 존재들이 발신자의 기능을 대변하고 있다. 게르다가 카이를 찾은 후 집에 돌아와 예전에 들어 앉았던 의자에 손을 잡고 앉는 것은 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주체가 욕망하는 순수한 사랑을 수신 받는 수신인은 카이와 게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행위소 모형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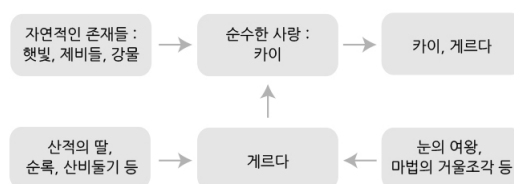


그림 3. 「눈의 여왕」의 행위소 모형

위의 모델에서 게르다가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은 순수한 사랑, 즉 카이이다. 까마귀, 공주와 왕자, 산적의 딸, 라플란드 할머니와 핀란드 여자 등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게르다가 욕망을 추구하는데 우호적이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조력자는 산적의 딸이라 할 수 있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죽이려고 하는 산적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었고, 자신이 키우던 산비둘기로부터 카이의 행방을 알게 된 게르다에게 순록과 털부츠, 먹을거리를 주며 산적의 소굴에서 탈출시켜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대자는 눈의 여왕, 마법의 거울 조각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적대자는 마법의 거울 조각이다. 카이의 심장과 눈에 거울조각이 들어가자 카이는 냉소적으로 변해 자신이 좋아하던 장미를 뽑아버리고 친남매처럼 지낸 게르다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법의 거울 조각은 적대자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적대

자는 게르다의 소꿉친구인 카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간 눈의 여왕이다. 또한 게르다가 배를 타고 물살에 떠내려갔을 때 처음 만난 마법을 쓰는 노파도 적대자라 할 수 있다. 노파는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게르다를 자신의 정원에 붙잡아 두려고 했기 때문에 적대자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2 겨울왕국의 행위소 분석

겨울왕국의 주체는 안나이다. 안나는 언니 엘사의 일방적인 외면과 부모님의 죽음으로 혼자 외롭게 성장하며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 대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엘사의 설빙능력을 알게 되자 엘사는 두려워하며 북쪽 산으로 도망치고, 아렌델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온다. 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안나는 언니 엘사와 아렌델의 여름을 되찾기 위해 북쪽 산을 향해 길을 떠난다. 여기에서 안나가 추구하는 사랑은 어릴 적 함께 놀았던 언니를 되찾겠다는 언니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을 위해 아렌델에 여름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다.

주체인 안나에게 대상인 진실한 사랑-구체적으로 엘사와의 관계회복, 아렌델의 여름-을 욕망하도록 하는 발신자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빙능력을 가진 엘사의 동생이자 아렌델의 공주로 태어난 운명 때문이다. 이 운명 때문에 안나는 외로운 성장과정을 겪었고 이로 인한 애정결핍은 처음 본 남자에게 사랑을 느껴, 만났지 몇 시간 만에 청혼을 승낙하게 한다. 진실한 사랑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엘사와 아렌델 백성 그리고 안나 자신이다. 결국 엘사는 진실한 사랑을 전달받아 설빙능력을 제어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진실한 사랑으로 꿈꿨던 아렌델이 예전의 행복했던 아렌델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기 때문에 아렌델의 백성도 진실한 사랑을 수신하는 수신자라 볼 수 있다. 안나 역시 어릴 적 기억 속에만 있었던 엘사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크리스토프와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안나 역시 대상인 진실한 사랑을 수신하는 수신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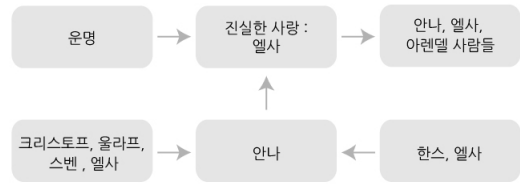


그림 4. <겨울왕국>의 행위소 모형

안나가 진실한 사랑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는 얼음 장수 크리스토프와 눈사람 올라프 등을 들 수 있다. 크리스토프는 안나와 엘사가 있는 곳까지 동행하며 위험에 처한 안나를 도와주고, 설빙능력을 맞아 얼어붙어가는 안나에게 치료 방법(act of love)을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스에게 데려다 주는 등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눈사람 올라프는 엘사가 마법으로 만든 결과물이지만, 역시 안나에게 훌륭한 조력자이다. 올라프는 안나에게 엘사의 얼음 왕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안나에게 자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한스가 꺼버린 불을 지펴주고, 크리스토프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력자이다.

엘사는 처음에 안나의 적대자였지만, 마지막에 얼어붙은 안나를 꺼안고 오열하면서 안나에게 걸린 마법이 풀리게 하여 안나를 살아나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대자와 조력자, 두 가지 역할을 동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적대자는 한스이다. 아렌델의 왕위에 오르려고 안나를 그대로 죽게 만들고 엘사마저 죽여 왕이 되고자 하는 한스는 안나에게 가장 큰 적대자이다.

### 3. 기호사각형의 비교분석

#### 3.1 「눈의 여왕」의 기호사각형

「눈의 여왕」의 심층수준을 이루고 있는 주제의 의미작용을 기호사각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눈의 여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면과 외면의 이항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위에 제시된 기호사각형에 의하면 “감정적”은 게르다와 카이가 친남매처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을 말한다. 친남매처럼 사이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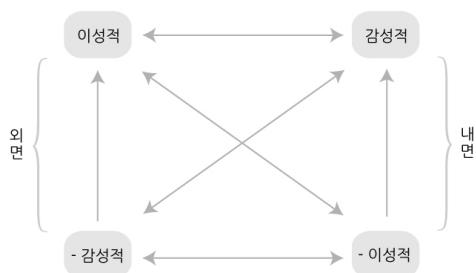


그림 5. 「눈의 여왕」의 기호사각형

게 지냈기에 게르다는 카이가 사라졌을 때 자신이 아끼는 빨간 신발을 강물에게 선물로 주면서까지 카이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즉 게르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한 사랑이 모든 위험을 무릎 쓰면서 카이를 찾도록 한 것이다. 그것의 대립항인 "이성적"에는 마법의 거울 조각이 눈과 심장에 들어간 카이가 돋보기로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들을 비춰보며 외적인 면을 판단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카이는 게르다와 같이 좋아하며 키우던 장미꽃을 보는 것보다 돋보기로 눈송이의 기호학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좋아진 것이다. 마법의 거울조각은 카이에게 가능성 대신 한계를 보게 하는 냉철한 이성을 갖게 한 것이다. 이것은 눈의 여왕의 성 안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 이성의 거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감정적"의 모순항인 "-감정적"에는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입을 맞추어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고향에 두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잊게 한 일과, 게르다가 카이를 찾아왔을 때 카이가 게르다를 알아보지 못한 일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게르다가 카이를 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자 카이의 심장과 눈에 있던 마법의 거울조각이 썩어 나와 카이는 자신의 예전 모습을 되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적"의 모순항인 "-이성적"에는 마법의 거울조각이 카이의 심장과 눈에 들어간 일과 눈보라가 치는 데에도 카이를 찾기 위해 기도를 올리며 눈의 여왕의 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게르다의 모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람의 심장과 눈에 마법의 거울조각이 들어가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카이는 냉정한 이성적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게르다가 눈의 여왕으로부터 카이를 되찾음으로써 카이는 보여 지는 외면

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시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게르다와 함께 돌아온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눈의 여왕」은 단순히 순수한 사랑에 대한 것은 아니다. 사라진 소꿉친구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보여 지는 외면을 중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동적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내면 = 보이지 않는 것(과거) = 종교적

vs

외면 = 보이는 것(현재) = 과학적

눈의 여왕에서 내면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종교적인 것들과 관련지을 수 있다. 내면의 측면에 속하는 게르다는 과거 카이와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해 카이를 찾아 나선다. 게르다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종교적인 힘(기도와 찬송)으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결국 카이를 찾아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르다와 카이가 어른이 된 것을 통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성숙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면의 측면에 속하는 인물은 마법의 거울 조각이 들어간 카이이다. 거울 조각이 들어간 후 카이는 외적인 것들과 실제로 보여지는 과학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장미 속에 있는 벌레들이 보였으며, 돋보기로 눈을 관찰하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또한 게르다와 과거에 함께 부르던 찬송가와 기도도 기억나지 않고 단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구구단만이 기억났던 것이다. 그렇지만 카이에게서 마법의 거울 조각이 사라지자 카이는 예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찬송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대목을 통해 종교적으로도 성숙했음을 알 수 있다.

### 3.2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

기호사각형을 통해 본 겨울왕국은 과거와 현재의 이항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기호사각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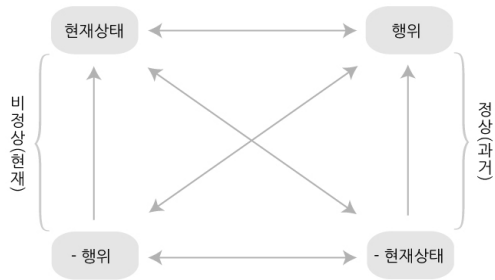


그림 6.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

기호사각형에 의하면 엘사가 아렌델 왕국을 얼려버리는 것, 안나가 한스와 결혼하겠다고는 것은 "행위(의도하지 않은 행위)"이고, 이 행위들로 인해 아렌델은 "현재상태", 즉 거울에 빠져들게 된다. "현재 상태"는 엘사와 안나의 현재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과거 엘사와 안나의 관계는 사이좋은 자매였다. 그러나 현재 엘사와 안나의 관계는 엘사가 안나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동생 안나가 다치게 되자 엘사가 자신의 설빙능력을 제어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나타나는 행위이다. 대관식 파티에서 설빙능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써버린 엘사가 아렌델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도 자신의 동생 안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엘사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엘사는 동생 안나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킨 것이다. "-행위(의도된 행위)"에 위치한 한스는 안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현재 상태"인 아렌델의 거울을 통해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 이렇게 뒤죽박죽된 현실을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 안나가 나선다. 안나의 서사행로는 "-현재 상태"의 의미소축을 출발점으로 시작한다. 과거 언니 엘사와 사이가 좋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안나는 언제나 엘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엘사는 단 한명의 가족인 동생 안나를 다치고 싶지 않기에 철저히 외면하게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에서 엘사는 안나의 철없는 행동에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여 아렌델을 뽕뽕 얼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다. 한 여름에 거울이 찾아온 아렌델을 구하기 위해, 엘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나는 무작정

엘사를 찾아나선다. 한스는 이러한 아렌델의 상황을 통해 아렌델의 왕위에 오르고자하는 야욕에 불타올라 안나를 배신하고 결국 안나와 엘사를 죽이려하지만, 안나는 엘사를 구하게 되고 엘사 또한 사랑의 행동으로 안나를 구할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빙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예전의 행복했던 아렌델 왕국으로 돌려놓는다. "현재 상태"를 부정하고 모순관계인 "-현재 상태", 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안나의 서사행로를 통해 본 <겨울왕국>의 의미생성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엘사, 엘사를 화나게 할 생각이 아니었던 안나의 결혼발표, 그리고 두 자매가 사이좋았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 등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엘사의 실수로 인한 아렌델의 겨울과 안나와의 관계, 또 왕위에 오르고자하는 욕망으로 인한 한스의 의도된 접근과 배신, 이러한 것들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왕국>은 현재를 벗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의도하지 않은 크리스토프의 사랑과 자매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IV. 결론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은 거울과 그 파편 이야기로 시작하여 일곱 번째 이야기까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르다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눈의 여왕에 의해 납치된 소꿉친구 카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언니 엘사와 동생 안나 두 공주 자매의 성장과 우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동생 안나가 설빙능력 때문에 도망친 언니 엘사를 찾아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얼어붙은 아렌델을 원래 따뜻했던 아렌델로 돌려놓는 이야기이다. <겨울왕국>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냉혹하고 강력한 눈의 여왕을 따뜻하고 성숙한 엘사로 변형시켰으며, 스토리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엘사와 안나를 자매관계로 설정하고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로 바꾸었다.



「눈의 여왕」에서는 주로 게르다가 눈의 여왕과 대립하는 서사구조로, 게르다를 중심으로 단일한 서사구조인 반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안나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구조와 엘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두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새로 추가된 캐릭터인 크리스토퍼, 올라프, 한스 등이 더 풍성하고 다층적이며 생동감 있는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진실한 사랑의 행동으로 안나를 구해낸 사람이 크리스토퍼라고 착각하게 만든 서사와 한스가 왕위의 야욕을 드러내며 안나를 죽게 내버려 둔 배신의 서사 배치는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엘사가 만든 올라프는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사랑스러운 면이 배어나는 행동과 말들로 이 작품에 정감과 재미를 더해준다.

「눈의 여왕」에서는 게르다가 <겨울왕국>에서는 안나가 주체로써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게르다는 카이 즉 순수한 사랑을, 안나는 엘사 즉 진실한 사랑을 욕망하고 있으며, <겨울왕국>에서는 「눈의 여왕」에서의 친구간의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자매간의 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변형하여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왕국>에서는 안나가 욕망하는 진실한 사랑을 수신받는 수신자는 엘사 뿐만 아니라 아렌델 왕국의 모든 백성들도 수신받기 때문에 수신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보다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안나 공주의 마음이 대중을 감동시켜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성적을 올리게 한 것이라 판단된다.

「눈의 여왕」에서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해결되며 그것으로 인해 의미를 생성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과거와 현재로 조응시켜 게르다가 과거 카이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눈의 여왕」은 어린이들을 위해 행복한 결말이라는 동화의 일반적인 도식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그 서사과정에선 마법의 겨울 조각을 통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슬프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을 극복해나감으로써, 「눈의 여왕」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종교적으로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겨울왕국>은 원작 「눈의 여왕」을 분해하고 조립한 후 창조적 개연성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두 공주 자매의 이야기로 재창조되었다. 재해석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도 아름다운 두 공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과거 애니메이션 서사의 전형적인 도식을 따르는 듯하지만 거기에 소외와 편견, 배신이라는 오늘날의 현실이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과거를 겨울과 여름으로 조응시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즉, <겨울왕국>의 의미생성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들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며, 여름이 겨울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아렌델의 겨울과 엘사와 안나와의 관계, 왕위에 오르려고자한 한스의 야욕-을 과거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즉, <겨울왕국>이 생성하는 의미는 현재를 벗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라 할 수 있으며, 소외와 편견, 배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극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겨울왕국>에서 말하고자 하는 과거 지향적 가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 들었어도 믿기 어려운 소식들, 불안한 정세, 소외와 편견, 배신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정과 희망이 넘쳐났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승승장구하여 원작인 「눈의 여왕」을 다시금 찾아보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겨울왕국>은 원작 「눈의 여왕」과 비슷한 이야기-사랑을 추구하는-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눈의 여왕」의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사회적이고 대중적으로 풀어가며 현재의 부조리를 대변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 주제, 배경, 캐릭터, 사운드 등을 변형하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이야기와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기호학연대, *대중문화 낯설게 읽기*, 문학과 경계사, 2003.
- [2] 신항식, *시각영상 기호학*, 나남출판사, 2005.
- [3]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출판부, 2002.
- [4] 이윤진, 권재웅, “<슈렉> 3부작의 기호학적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No.16, pp.101-112, 2009.
- [5]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임현관 역, *눈의 여왕 -안데르센 단편선*, 더클래식, 2013.
- [6] 성례아, 김혜성,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구조와 의미생성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No.37, pp.197-219, 2014.
- [7] 심경범, *겨울왕국 속 눈의 여왕*, 산호와 진주, 2014.
- [8] 김보현, “<겨울왕국>에 나타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형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Vol.11, No.1, 2015.
- [9] 이혜원, 김민정, “<겨울왕국> 을 통해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No.35, pp.107-128, 2014.
- [10] 공현희, “<겨울왕국>의 서술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38, pp.77-86, 2014.
- [11] 이건주, “프로프의 민담형태론과 동화분석: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대상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Vol.32, pp.217-236, 2010.
- [12] 이영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신화적 갈등과 화해의 역동성을 통해 본 동화의 창조성,” *영어영문학연구*, Vol.36, No.4, pp.151-170, 2010.
- [13] 허윤진, “거울들 - 동화 「눈의 여왕」 과 영화 <Blind>의 주제학적 연구,” *여성문학연구*, Vol.30, pp.543-568, 2013.
- [14] 이성훈, “안데르센 동화 「눈의 여왕」 에 나타난 구원의 문제,” *독어교육*, Vol.53, pp.347-370, 2012.

저 자 소 개

성례아(Re-A Sung)

증신회원



- 1996년 2월 : 배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시각디자인(미술학사)
  - 2002년 8월 :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미술학석사)
  - 2013년 2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디자인(미술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영상디자인, 영상콘텐츠